



코리아팩2013, 대한민국 패키징 산업의 힘 과시 역대 최대 4만명 방문 · 2100억원 상담 실적 성과

제18회 국제포장기자재전(코리아팩2013)이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 킨텍스 전시장을 달구며, 역대 최대 규모인 4만명이 방문하고 내수 1400억원, 수출 6200만달러 등 총 2100억원의 상담 실적을 올린 끝에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Better Packaging, Better life'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시아 3위권의 글로벌 패키징 전문전시회로 평가받는다. 올해 18회를 맞이해 패키징 관련 신제품과 최신공정기술, 친환경소재, 제품과 디자인 등 패키징 전반에 걸쳐 25개국 800개사가 참가해 총 2500부스가 설치됐으며, 참관객은 4만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출품기업은 150개사, 출품면적은 500개 부스, 참관객은 8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해외바이어 100개사 초청 2천만달러 수출 상담

전시내용면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패키징 공정기술은 20% 증가하고, 친환경 패키징, 패키지 디자인, 골판지·지함·플라스틱 용기 분야 등 산업 전시회에서 보기 힘든 패키징 기업이 참가해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는 패키징 전반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패키

징을 중심으로 식품, 제약, 화장품공장의 화학공정, 생산공정, 물류공정과 기업연구소의 실험·분석장비 등이 함께 전시돼 패키징의 관련 정보를 한자리에 모았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시주최자인 경연전람은 국내 우수 패키징기업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일본, 중국, 몽골, 인도, 말레이시아 등지의 해외바이어 100개사를 전시회에 초청해 참가기업과의 수출 상담을 주선했다. 초청된 바이어들은 한국 패키징 기술과 국제화된 전시회 규모에 놀라워하며 약 200여 기업의 부스를 방문, 예상보다 많은 2천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남기기도 했다.

코리아스타어워드, PAC2013 등 부대행사 질적 향상

전시회와 동시에 열린 부대행사의 내용도 질적으로 향상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 기술센터가 주관해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7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은 패키징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대륙

제관, 삼성전자, 엘지전자, 드림, 한국컨테이너 풀 등이 정부포상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급변하는 생활환경과 가치소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형·자원절감형·UNIT패키징 제품이 부각됐다.

전시회 둘째 날에는 패키징기술센터, 한국포장학회, 한국포장기술사회, 연세대 패키징학과, 바이오소재 패키징협회 등 패키징 산업 관련 산학연 5개 단체의 전문가들이 연합해 제1회 패키징 연합컨퍼런스(PAC2013)를 개최, 1천여명 이상의 패키징 산업 종사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PAC2013은 우리나라 패키징 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패키징 강국실현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5개 단체의 전문가들이 연합해 개최한 첫 번째 컨퍼런스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ISTA협회 Edward Church 회장의 특별강연을 비롯해 스웨덴 PACK-BRIDGE 네트워크 Per-Stefan Gersbro CEO 등의 초청 강연은 패키징 선진국들의 글로벌 성공전략과 주요 기술이 소개됨으로써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시회 셋째 날에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이 주관한 '제4회 브랜드패키징디자인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롯데음료, KT&G, 홍익대 등의 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패키징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 15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패키지 디자인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다.

코리아팩2014, 서울팩과 통합해 3200부스로 크게 확대

코리아팩 전시회는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명품전시회'로 진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사)한국포장기계협회가 주관하는 패키징 기계분야 전문전시회인 서울팩과 통합해 개최기로 했다. 이에 식품, 제약, 화장품 관련 국내 대표 패키징 기업과 해외바이어의 참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 공동 주최로 열리는 코리아팩2014 전시회는 최소 3200부스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일본의 JAPAN PACK이나 TOKYO PACK보다도 약 30% 이상 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전시회 해외홍보지원을 최대한 요청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빅 바이어' 초청확대 계획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사)한국포장기계협회 이종우 회장은 "전시회 통합을 계기로 코리아팩 전시회를 전세계 포장바이어들이 찾아오는 국제전시회로 적극 육성해 한국 패키징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 회원사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측인 경연전람회 월간포장은 코리아팩2013 기간 동안 전시회 통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국내외 패키징 산업종사자들에게도 대대적인 홍보작업을 벌였다. 한편, 코리아팩2014는 2014년 5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인터팩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이다. G



1. PAC2013 개막식 테이프커팅 모습 2. 해외바이어 100개사 초청 행사 3. 제7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시상식 4. 제1회 패키징 연합 컨퍼런스 전경